



2017년 글로벌 보험산업의 리스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아름 연구원

여약

CSFI의 보험산업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2017년 설문조사 결과, 운영적 리스크 범주, 특히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 경영환경 변화 리스크 이외에도 기술 변화와 사이버 리스크가 가장 우려가 높은 리스크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우려하는 리스크의 순위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기술 변화 리스크를 가장 우려함. 한편, 지난번 조사 이후 보험산업의 리스크 대비 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우려가 커짐

- 금융혁신연구센터(CSFI: Centre for the Study of Financial Innovation)¹⁾의 2017년 글로벌 보험산업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설문조사²⁾ 결과, 2년 전에 비해 운영적 리스크 범주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³⁾
 - CSFI는 전 세계 52개국⁴⁾ 836명의 보험회사 실무자, 규제담당자, 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⁵⁾
 - 동 설문은 2007년 이후 2년마다 실시되었으며, 2015년까지 규제가 가장 큰 리스크로 간주되었으나, 2017년에는 2015년에 비해 경영환경 변화가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됨
 - 개별 리스크로는 경영환경 변화, 사이버 리스크, 기술, 금리, 투자 성과, 규제, 거시경제, 경쟁 심화, 인적 재능, 보증 상품(guaranteed products), 정치적 개입, 사업관행, 비용 절감, 경영의 질, 리스크 경영의 질, 사회적 변화, 평판, 상품개발, 기업 경영구조, 자본 가용성, 복합적 기구, 브렉시트의 순으로 22개의 잠재적 리스크가 보험업계에서 우려하는 리스크로 나타남

1) CSFI는 비영리 싱크탱크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 금융 분야의 미래 발전에 관해 조사하는 기관임
 2) 설문조사 내용은 보험산업의 향후 2~3년 이내 주요 관심사, 잠재적인 리스크, 리스크 대비 수준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3) CSFI(2017), "Insurance Banana Skins 2017-The CSFI survey of the risks facing insurers"
 4) 유럽과 아시아 지역 설문조사 대상자가 각각 39%, 34%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남미국가 11%, 북미국가 7%, 아프리카 2%, 그 외 7%를 차지함
 5) 설문조사 대상은 생명보험회사 27%, 손해보험회사 29%, 종합보험회사 17%, 재보험회사 7%, 규제담당자, 컨설턴트, 분석가 등 그 외 16%, 중개사 4% 등으로 구성됨

■ 보험산업 공통적으로 경영환경 변화 이외에 기술 변화, 사이버 리스크가 가장 높은 순위의 리스크로 나타났으며, 그 외 리스크는 보험업권별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남⁶⁾

-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 및 사이버 공격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 변화, 기술 변화, 사이버 리스크가 업권 공통적으로 중요 순위가 높은 리스크로 나타남
-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새로운 경쟁구도 구성 및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기술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
- 한편, 생명보험회사와 종합보험회사의 경우, 저축성상품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이를 낮은 리스크로 봄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다른 업권보다 경쟁 심화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만,⁷⁾ 공통적으로는 기술 변화 리스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보증 상품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저금리 지속 우려가 가장 컸으며, 이에 따른 보증 상품 및 투자 성과 리스크도 증가함
- 또한, 정치적 개입 리스크가 미국(트럼프 당선)과 유럽(무역 전쟁)의 경우 큰 반면, 다른 국가들은 낮음
-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는 북미 지역(6위), 유럽(7위), 남미 지역(7위)의 경우 큰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낮음(순위권 밖)

■ 한편, 2017년 보험산업의 리스크 대비 수준은 평균 3.02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2015년 3.20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우려가 커짐

- 리스크 대비 수준은 1~5점 척도로 평가되는데 1은 ‘빈약’, 5는 ‘완전’ 수준임 **kiri**

6) 생명보험회사는 금리, 경영환경 변화, 사이버 리스크, 투자 성과, 기술, 규제, 보증 상품, 사업 관행, 거시경제, 인적 재능 등의 리스크 순으로, 손해보험회사는 기술, 경영환경 변화, 사이버 리스크, 경쟁 심화, 투자 성과, 규제, 인적 재능, 금리, 거시경제, 경영의 질 등의 리스크 순으로, 종합보험회사는 금리, 경영환경 변화, 사이버 리스크, 기술, 투자 성과, 거시경제, 규제, 경쟁 심화, 보증 상품, 인적 재능 등의 리스크 순으로 업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함. 또한, 재보험회사는 사이버 리스크, 경영환경 변화, 투자 성과, 거시경제, 기술, 경쟁 심화, 정치적 개입, 금리, 규제, 비용 절감 등의 리스크 순으로 중개사는 기술, 경영환경 변화, 사이버 리스크, 금리, 인적 재능, 규제, 정치적 개입, 리스크의 질, 경영의 질,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 순으로 업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함

7) 유럽의 경우, 금리, 사이버 리스크, 경영환경 변화, 기술, 보증 상품, 투자 성과, 규제, 거시경제, 경쟁 심화, 정치적 개입 등의 리스크 순으로, 아시아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 기술, 사이버 리스크, 투자 성과, 인적 재능, 평판, 경영의 질, 사업 관행, 금리,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 순으로 업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함. 또한, 남미의 경우, 투자 성과, 기술, 사이버 리스크, 경영환경 변화, 거시경제, 금리, 규제, 리스크의 질, 비용 절감, 사회적 변화 등의 리스크 순으로, 북미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 사이버 리스크, 기술, 인적 재능, 경쟁 심화, 규제, 금리, 정치적 개입, 비용 절감, 상품 개발 등의 리스크 순으로 업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함